

October, 2015



포도나무



"협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윤종대 장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의 가르침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그런데 복 대신 고난이 왔다. 당신이라면 원망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10대의 어린 나이에 초신자라면...

윤종대 장로(80)는 달랐다. 그가 교회에 첫발을 디딘 때는 6.25사변 직후 시골 중학교 3학년 시절. 사춘기 소년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칠던 생활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주일학교 반사로,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노방전도에 나설 만큼 열심을 냈다.

고1때 급우가 폐결핵으로 누웠다. 소년 윤종대는 방과 후 매일 그 친구 집을 찾아 학교 진도를 알리고 위로했다. 반년이 넘게 친구를 찾았던 그에게 결핵균이 번졌다. 병명은 결핵성 늑막염. 고교 2학년까지 8개월을 병상에 누워 학교에 가지 못해 유급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뒤쳐진 학업을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 서울의 명문대 역사학과에 진학했다.

후회는 안했지만 결핵균은 평생 그의 발목을 잡는 가시가 되었다. 대학 졸업후 군대 신체검사에 번번이 낙방했다. 심지어 자원입대한 논산 훈련소에서 일주일만에 쫓겨났다. 요즘은 군면제를 받기 위해 혈안이지만 그때는 달랐다. 5.16 군사혁명 후 군미필자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청년 윤종대는 공직 대신 교단을 택했다. 기독교 정신과 민족교육으로 유명한 거창고에서 청춘을 불살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신념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들의 영혼을 일깨웠다.

5년 후 다시 서울로 온 윤장로는 세계적 구호단체 '컴패션'과 여러 무역회사를 거쳐 직접 무역업에 종사했다. 세계각지의 무역상을 만나 상담하며 "전공인 역사와 지리공부에 보탬이 되고 삶의 폭을 넓혀주는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팔순에 이른 지금도 가끔씩 어린 시절 병마의 통증을 안고 사는 윤장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롬8:28)는 말씀이 그대로 자신의 삶에 투영된 것에 감사한다. 현재는 전공을 살려 이스트베이 평생교육원에서 세계역사와 우리민족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소설가 김원우는 "인생은 어차피 덧없는 한장의 스냅사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윤장로의 삶은 빛바랜 흑백사진에 박혀있지 않다. 천연색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그의 삶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새가족부기자 한범중 집사>



"주님께 맡긴 인생" 정미성 권사

정미성 권사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불상이 무서워" 절에는 가지 않았다. 그녀가 복음을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2학년 때 짝공의 집에 놀러가면서부터. 목사의 딸인 친구네는 무척 가난했다. 그러나 새우젓만 놓인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물질의 부족함을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고 단란한 친구의 가정을 보며 어린 소녀 정미성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평생 믿음생활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다.

우리교회와의 인연은 1996년시작됐다. 그해 성탄절 우리교회에 등록했다.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며 2002년에는 권사로 임직했다. 2년 전 시무권사에서 은퇴했어도 계속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있다. 그러나 평생의 반려자이며 신앙의 동지였던 남편 정일권 장로가 2003년 전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 남편을 24시간 돌보면서도 정권사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이 항상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한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새벽제단을 쌓으며 "주님께서 내안에 함께 하시므로 그 안에서 모든것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정권사는 힘들거나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여호수아1장8절을 묵상한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다잡고 주께 삶을 맞춘다. 그러면 "주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 "삶을 주 안에 맞추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교회생활의 보람을 느낀다"는 정권사. "교인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할 때 비길 수 없는 참기쁨이 온다"고 성도들께 권면한다.

<새가족부기자 노정은집사>

은혜의빛 장로교회의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정광실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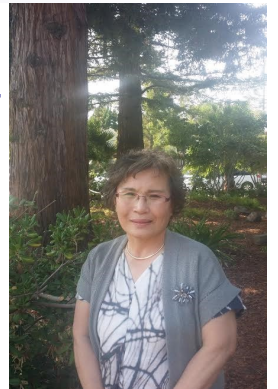
정광실성도는 26여년을 시애틀에 사시다가 10년전 남편과 사별후에 혼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따님과 손주들의 재롱을 받으시며 함께 사시게 되었다. 올해 6월에 딸의 직장이전으로 나파벨리로 이사 오게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6월말부터 우리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시게 되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바쁜 이민생활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늘 삶속에 하나님은 계셨다고 하신다. 이번에 시작하는 신약성경방을 등록하고 성경방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기대된다고 하며 요즈음은 늘 성경책을 침대머리맡에 두고 자는 버릇이 생기셨다고 한다.



<새가족부기자 박은주집사>

"믿음의 어머니를 본받아" 조복자권사

조복자권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시어머님의 하명으로 신앙생활을 결혼후 바로 시작하게 되었다. 생전의 시어머님을 생각할때 늘기도와 성경읽는 모습만 회상하게 된다고 하시며 4형제와 사위까지 모두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섬기셨다. 권사의 남매도 믿음의 가정안에서 잘자라준것이 범사에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어머니의 덕택이라고 하신다. 우리교회는 이금자권사의 인도로 오셨으며 교회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권사는 특별히 시편39장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말씀을 볼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하시며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삶의 태도가 온전히바꾸기를 소망하신다.말했다.



<새가족부기자 이원정권사>